

늘어나는 미국 capacity, 줄어드는 화학 spread

- ▶ 미국 11월 PE 생산 “신규설비의 가동” 으로 8개월 래 최대. 지속 우하향하는 PE spread에 대한 우려 증폭
현대미포조선의 활발한 화학 운반선 발주로도 확인되지만, 화학의 down-turn 진입 의견 견지함

11월 미국 PE 생산 신규설비 진입 등으로 8개월 래 최대

November US and Canada polyethylene production at eight-month high: ACC

Houston (Platts)--13Dec2017/116 pm EST/1816 G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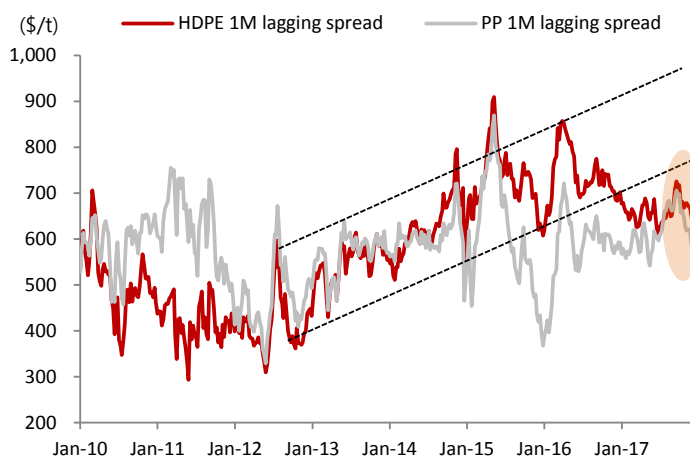
Polyethylene production in the US and Canada was at the highest level in eight months in November **as the impact of new startups and post-Hurricane Harvey restarts were felt in the market**, according to preliminary data released Wednesday by 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Total polyethylene production for November topped 3.55 billion lb, up from almost 3.28 billion lb in October and the most since producers made more than 3.62 billion lb of pellets in March. Total sales were at almost 3.5 billion lb, down 1.96% from October's total of more than 3.4 billion lb.

자료 : Platts, SK증권

- 미국/캐나다 11월 PE 생산이 8개월 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화학협회(ACC)의 발표에 따르면 35.5억 파운드로서 전월 32.8억 파운드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 원인으로는 ① 신규설비의 가동, ② 허리케인 Harvey 효과 이후의 재가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 어찌 되었든 앞으로의 화학 시장은 미국의 대규모 신규설비가 얼마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신규설비 가동”에 따른 물량 증대는 간과할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그리고 때마침 PE spread도 지속 하락 중이죠

13년 이후 우상향하던 PE/PP spread 이미 밴드 하방 이탈



자료 : Platts, Ciscem, SK증권

- 2014년부터 화학 호황을 홀로 견인했던 것이 바로 PE인데요, spread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년간 이어오던 우상향 밴드를 이미 하방 이탈한 상황입니다. PP도 다르지 않습니다
- 최근에는 원재료 naphtha spread 반등에도 가격이 움직이지 못하면서 14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죠
- 이전부터 SK증권 소재/산업재 파트는 미국 화학설비가 나오는 지 안 나오는 지는 조선, 즉 현대미포조선의 화학 운반선(MR탱커) 수주에서 확인해보자고 주장했는데, 실제 10월과 11월에도 총 5척을 수주하며(YTD 46척) 꾸준히 잔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 이렇게 본다면 연초 대비 KOSPI가 22.5% 올랐는데, 반대로 5.1%가 하락한 롯데케미칼 주가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화학의 추세적 down-turn 진입이라는 의견 견지하겠습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